

# ‘청년 행복 도시’ 나주시, 생애주기별 정책 만족도 ↑

## 주거·일자리·문화·육아 전방위 지원 ‘워라밸’ 추구...MZ 맞춤형 시책 ‘눈길’

나주시가 청년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며 ‘청년 행복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3년 동안 출생, 교육, 취·창업, 주거, 결혼, 육아, 여가·문화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청년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창업 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근속장려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핵심 사업들이 목표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한 우수기업 유치,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협업한 창업 공간 지원 등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도 구축 중이다.

주거 정책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증금 0원 임대주택’ 135호를 공급해 주목을 받았다.

<b>일자리 창업</b>	청년 근속장려금 등 핵심사업 100% 달성 수도권 로드쇼 통한 우수기업 유치 창업 공간 조성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협업)
<b>주거 지원</b>	보증금 0원 임대주택 135호 공급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 × 12개월 디딤돌 통장 월 10만원 저축 + 10만원 매칭 (36개월)
<b>결혼 출산 육아</b>	결혼축하금 200만원, 결혼비용 5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출생수당 월 20만원 × 18세까지 (총 4,320만원) 전남 최초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b>교육 복지</b>	입학지원금, 교육비, 학자금, 면접장 등 전방위 지원
<b>성과</b>	출생아 수: 2023년 8.1%, 2024년 7.2% 증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매달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6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도 인기다.  
청년 부부에게는 결혼축하금 200만원과 함께 ‘공공 작은 결혼식’ 및 500만원 상당의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전남도 최초로 ‘365일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실’을 빛가람동, 남평동, 송월동에 설치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진은 나주시 제1호 365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개원식. <나주시 제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소득·거주 기준을 폐지하고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 중이다.  
출생기본수당은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총 4천3

2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365일 시간제 보육실’도 전남 최초로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교육·복지 정책으로는 초·중·고교 입학지원금과 교육비, 방과후 학습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면접장대여, 증명사진 촬영 등 ‘나주

형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결과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1%,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들을 위한 여가·문화·체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나주애배움바우처’ 등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넓혔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에는 실내 수영장과 스쿼시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는 수영장과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영산강 자전거길은 전국 라이더들이 찾는 나주의 자랑이기도 하다.

또한 나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는 연중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나주, ‘청년 행복 도시 나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매력도시 나주’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영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4억 돌파

## 기업 등 현장 방문 홍보·이벤트 성과 전년비 182% ↑·기부건수 274% ↑

영암군의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6월 말 기준 4억원을 돌파했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4억원 돌파 시점이 10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4개월이나 앞당긴 것으로, 꾸준한 현장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2억2천만원에서 182% 증가했고 기부 건수는 1천197건에서 3천274건으로 274% 증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53개 지역 안팎의 기관·기업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현장 기부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HD현대산호를 포함한 대불산업단지 입주업체 임직원, 광주시민, 서울시민 등 576명으로부터 총 5천67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해 전국민의 기부행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달 29일까지는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했소? 한우왔소!’ 이벤트로 신규기부자와 재기부에게 추첨을 거쳐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고, 30·31일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이벤트 한우상품을 주문하면 한우를 증량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영주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 4억원 조기 달성은 영암군에 보내 준 기부자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돌며 다가가는 홍보로 더 많은 참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천연기념물 진도개 ‘방문 진료’ 호응

## 기생충 예방 접종·구강 검사 등

진도군은 15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진도개 방문 진료’가 군민과 진도개 양육 능력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개 방문 진료’는 고령농가와 이동 취약계층, 교통 취약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도개의 건강관리와 품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마



찾아가는 맞춤형 진료 방식(사진)이며, 진도개 축산과 진도개관리팀(061-540-6306)에 신청하

면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260개 농가의 진도개 약 4천500마리가 방문 진료를 받았으며, 주요 진료 항목에는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기생충 예방 ▲피부질환 및 구강질환 진단 등이 포함된다.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진도개 방문 진료를 통해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양육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된 진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2025년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 참가자들이 지난 13일 신지 명사십리 걷기 행사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완도군 제공>

## 1천여명 참여...치유 관광 활성화 도모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천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지 명사십리에서 ‘2025년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했다. 자연 속 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도의 해양치유 자원 및 맨발 걷기를 결합한 치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김양훈 완도군의

회 의장, 군의원, 전국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제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해양치유 완도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지정 선포식 등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모래 해변과 해수욕장의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청정한 자연과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당일 오전부터 해변 필라테스와 엑서사이즈, 머드 팩, 꽃차 시음 등 해양치유 체험존이 운영돼 완도 해양치유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박동창 전국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의 걷기 효능 및 동작 설명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고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완도군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 가치 확산 및 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7월6일을 ‘완도 해양치유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도 치렀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걷고, 해양치유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의 길’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웰니스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신안해상풍력발전사協 “정부 ‘RE100 산단’ 환영”

## 제도적 방향성·실질적 돌파구 제시 에너지 전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 계획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은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이어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 지연, 제도적 불확실성, 주민 수용성, 전력계통 문제 등 복합적인 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분명한 제도적 방향성과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시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신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대한민국 재생에너

지의 중심지”라며 “풍부한 해양 자원과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신안군의 선도적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RE100 수요기업 유치 ▲지역 재생에너지 100% 활용 ▲에너지 신도시 조성 등의 계획에 대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동안 청정에너지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성新安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 대한민국 RE100 산단단지의 모범 사례를 신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군이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 목포해상케이블카-해양유산研, 관광 활성화 협약

## 해양관광 홍보 지속 교류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5일 “전남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내에서 가장 긴 구간을 자랑하며 해상 파노라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전통 선박과 해양유물 등을 다수 보유한 국립 해양역사 전문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관광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



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 대표는 “상호 협력으로 해양유산과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18일 개장

## 파도풀·워터슬라이드 등 구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18일 본격 개장한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날 이상의 함평군수는 개장을 앞두고 현장을 방문해 주요 놀이시설과 수질관리, 안전 매뉴얼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주요 놀이시설과 그늘막, 쉼터, 락커룸 등 무료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됐다. 또한 무료 배달 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함평군은 폭염·수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올해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가 처음 열릴 예정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군은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물놀이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평군 자체 캐릭터 ‘황박이’를 활용한 차광막 디자인이다. 입구와 물품대여소 등에 설치돼 이용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상의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